

# 도서관 분야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한 상 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目 次

1. 서 론
  2. 상호협력의 필요성
  3. 북한 도서관계의 현황
    - 3.1 북한도서관의 관할부서 및 체계
    - 3.2 북한도서관의 인사체계
    - 3.3 북한도서관의 운영
    - 3.4 북한자료의 입수현황
  4. 상호협력방안
    - 4.1 상호협력의 정책적 기저
    - 4.2 상호협력의 내용적 측면
    - 4.3 단계적 추진방향 및 세부방안
  5. 결론 및 제언
- 인용문헌

## 1. 서 론

인구, 국가의 면적, 특히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예상보다 빨리 통일을 맞아 소위 '통일비용'이라는 커다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서관문제에서도 독일은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40여년간의 차이를 다시 통합하는 소화기간동안 여러가지 진통이 예상된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총리에 의하여 서명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해 내었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그 문본이 교환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합의서의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끝에 1992년 9월 17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협력유형은 협상에 의한 협력을 의미하며, 조정·협력·조화 등을 주요 협력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협력은 남북한 관계의 구체적 진전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 적합한 최적의 협력유형 및 협력양식을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남북간 상호협력은 학술문화를 교류하는 첩경이며, 통일후 궁극적으로 민족문화를 하나로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 글은 극도의 제한된 북한자료의 부족을 감내하면서도 기초적인 단계에서 남북간

도서관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뜻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다.

## 2. 상호협력의 필요성

남북한 도서관협력은 우리 언어와 민족사를 통일하는 탈 이데올로기, 탈 체제차원의 동질성 회복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양측이 제각기 생산하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문헌의 생산량으로 볼 때, 남북한 정보자료의 교류가 민족전체 생산성에 이바지하여 결국 긴장완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의 비정치적인 학술, 과학, 기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언어, 역사, 고고학 및 서지학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의 시급성을 남북한 양측이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서관 분야에서 남북간 상호협력은 정보자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원의 교류를 유발하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협조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고 도서관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 양자간에 기능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동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하게 만들게 될 것으로 믿는다.

## 3. 북한도서관계의 현황

도서관의 정책적인 면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도서관계의 사정과 북한 자료를 수집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책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힘으로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귀중한 문헌재부(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730). 이에 따라 도서관을 인민의 학습장으로 만들어 인민들을 학습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학습하며, 유일교양사업을 통해 주체성있는 공산주의 혁명가를 육성하는 인민의 혁명학습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서관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관할부서와 체계, 인사체계, 운영상황, 그리고 북한자료를 어떻게 입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북한도서관의 관할부서 및 체계

북한에 있어 도서관 운영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 비서국에 직속된 국가검열위원회와 정부원이며, 직접적으로는 행정기관인 정부원의 교육위원회 도서관 지도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지도국은 그 산하에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와 과학도서관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도서관협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IFLA에도 가입되었고, 협회사무국은 평양의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있다. 그리고 1992년 6월 7일 북한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도, 시,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각급학교 및 농촌에 15,000여개의 도서관(도서실포함)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국민일보, 1992. 6.15). 또한 최근에는 지방에 인민학습당과 도서관 건립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는데, 이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도서관 기능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평양에 있으며, 지방에는 각 도립, 직할시립, 시·구역 군립도서관과 아동도서관이 있는데 이러한 도서관을 군중도서관이라 통칭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6년 10월에 개관된 것으로 그 규모는 연건평 17,000평방미터에 7층건물로 장서는 약 300만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석은 2,000석이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민족고전실, 일반열람실, 자연과학·사회과학 등 부문별 열람실, 중앙참고문

현열람실, 특허창의고안열람실, 청년학생열람실 및 영화시설, 상점,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북한에는 웅장하고 현대적인 대건축물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가 인민대학습당이다(국가안전기획부 1984, 13). 이 인민대학습당은 1982년 4월에 개관된 것으로, 그 규모는 124,000평방미터, 높이 72미터, 12층규모의 한식건물이다. 인민대학습당은 1986년 현재 장서 3천만권, 열람석이 5,000석을 갖추고 있으며, 매일 평균 12,0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부대시설은 600여개의 방(열람실, 강의실, 녹음실, 홍보실, 문답실 등)이 있으며 약 10여개의 열람실을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800석의 좌석을 갖춘 강의실은 영화감상,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어강의실, 시청각강의실도 있다(Mupawaenda 1987, 44). 장서는 관성식 원경 도서관반장치가 되어있고, 열람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다(高哲義 1987, 456). 한편 김정섭에 의하면, 인민대학습당은 도서나 자료를 대출해 주고, 열람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연구활동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과학기술개발 조류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지식수준을 강화시켜주는 전 사회의 지식화를 위한 중앙기지이자, 교육기관이며 방송통신대학이므로 도서관이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민대학습당은 5대륙 100여개국과 국제상호대차업무와 자료교환을 하며,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업무를 수행한다(Kim 1991, 197).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보면 인민대학습당은 교육기관이자 도서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대학을 비롯하여 170여개의 대학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김일성대학의 도서관은 1946년 대학의 설립과 동시에 개관했으며, 장서가 약 200여만권, 열람석이 1,200석이다. 기술서나 과학도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으나 사상과 문학에 관련된 서적은 놀랄만큼 빈약하다. 황석영의 북한방문

기인 「사람이 살고 있었네」는 북한의 도서관에 관해 약간이나마 기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은 여러나라의 외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고전들이 번역하여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물에 있어서는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고 남한의 신간을 입수하고 있다. 일반출판물은 없지만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과 같은 계간지, 그리고 「신동아」 이외에 많은 남한의 시집을 소장하고 있다. 소설 「장길산」은 학생들내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며, 김지하의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고은의 「농부의 삶」, 이문구의 「해벽」, 「관촌수필」 뿐만 아니라, 박노해, 박태순, 조세희의 저서들, 그리고 백낙청, 염무웅의 평론집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남한의 생활을 배우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황석영 1993, 95-97).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업무가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앙과학기술연구소, 국가경제분야산하 중앙과학기술정보기관, 최하위 과학기술정보단위라는 3등급으로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를 나누어 현재 800여개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다(Kim 1991, 193-194).

### 3.2 북한도서관의 인사체계

도서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 사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1976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도서관학과에서 사서를 양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북한총람에도 김일성종합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규모는 알 수 없고 단지 주야간으로 사회과학계열에 신문도서관학과가 있어서 여기에서 사서를 배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제의 사회과학부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다고도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최근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종합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사서를 양성하고 있으며, 단기강습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민족통일연구원 1983, 184; 북한총람 1983, 12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46).

한편 북한은 사서의 등급제를 도입하여 현장에서

실무와 학습을 통해 양성하고, 도서관 지도국은 매년 검정시험을 치른다. 검정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사서는 주로 어학능력에 의해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정분희 1993, 30). 사서의 급수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高哲義 1987, 455).

- 1급-3개 국어를 습득하고, 박사·교수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자
- 2급-3개 국어를 습득한 자
- 3급-2개 국어를 습득한 자
- 4급-5급까지는 6급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5급-4년제 또는 5년제 대학 졸업자
- 6급-고졸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

위와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북한은 사서의 어학능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문헌을 번역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또한 인민대학습당을 교육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듯이 사서의 교수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서를 도서관일꾼이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 실무경험을 중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매년 여러차례의 학술발표회를 통해서 사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3 북한도서관 운영상황

북한의 분류법은 성인 공공도서관용의 「도서 및 서지분류표」(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 1986), 학생도

서관용의 「학생도서관분류표」(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 1983), 대학도서관용으로 「도서분류표」(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1980), 전문도서관용으로서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분류표」(중앙과학기술 통보사) 등이 있다.

북한의 목록규칙에는 「목록 및 서지 기입법」(도서관운영연구소 1984)이 있고, 이것은 도서명 기본 기입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서지활동으로 신간과학기술문헌에 관한 문헌목록 「과학기술문헌 통보」, 「혁명전통기념일 색인」, 「사회주의 애국주의 색인」, 「나라살림살이 교양자료」를 출판배포하였으며, 1965년 3월 1일부터 연합목록(종합목록)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1966년말에는 「자연과학연합목록」, 「민족고전연합목록」을 출판배포했다. 이 중앙도서관은 문헌복사봉사를 제공하며, 「연합통보」, 「신간통보」를 통해 도서의 해제, 전람회 개최안내, 도서관운영참고사항 등을 실어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서관 전문지로는 「도서생활」, 「도서관일군」 등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환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 2,000, 유럽지역에 900여개처, 아프리카 지역에 400, 미주 지역에 800, 대양주 100, 기타 국제기구, 도서관, 출판기관, 박물관, 연구소, 과학교육기관 등 총 4,000여개처와 교환을 하고 있다고 한다(양일운 1982, 112-113).

〈표 1〉 북한의 도서관 자료 국제교환상황

| 연 도 별 | 부 수                       | 교환국 및 교환처수    |
|-------|---------------------------|---------------|
| 1960  | 11,865부                   | 37개국          |
| 1963  | 4,000건<br>(신문, 잡지 포함)     | 43개국 80여개처    |
| 1965  | 6,800여종<br>(도서, 신문, 잡지포함) | 50개국 130개처    |
| 1966  |                           | 57개국 180개처    |
| 1972  |                           | 100개국 4,000개처 |

### 3.4 북한자료의 입수현황

우리보다 비교적 북한자료의 입수가 용이한 미국 국회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도서관에 소장된 북한도서들은 북한이 선전목적으로 배포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나머지는 일본과 홍콩 등지의 도서중개상들을 통해 구입한 것들이다. 홍콩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중간매개회사는 交流(Chio Liu)라는 도서수출입 상사이며, 일본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는 중간매개회사는 JPTC(日本出版貿易會社)이다. 그리고 북한의 신문이나 잡지류도 홍콩의 交流를 통하여 입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동경에 있는 '九越書房'이나 '學友書房' 등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본의 JPTC를 통해 직접 구입한다. 그 밖의 간행물들은 북한이 선전용으로 보낸 것들이다. 북한은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특별히 검토하여 선정되지 않고 접수처리되므로, 숫적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중복되는 것이 많고 선전선동적인 내용의 것이 많아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양기백 1991, 11).

통일원의 경우, 북한의 단행본은 대부분 국내 대행사인 교보문고와 우인문화사를 통해 입수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해외수집망을 통해서 입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에 의뢰하여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북한자료는 일본, 홍콩, 핀란드, 독일 수집망을 통해 입수되고, 마지막으로 해외출장자에게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해외수집망과 해외출장자를 통해 입수되는 자료는 대부분 북한이 선전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뿐만아니라 때때로 유용한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자료를 제3국을 통해 입수하게 되므로 중간 마진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실제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지불한다.

남한에는 「로동신문」, 「로동청년」, 「민주조선」, 「평양신문」 등과 같은 일간지, 각 분야별 총 81종의 북한 정기간행물이 들어와 있다. 또한 북한 및 공산권에서 발행한 「김일성선집」, 「조선전사」, 「공산당선언」, 「자본론」,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등 단행본 자료와 북한 및 공산권관련 각종 화일 자료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편집제작한 「개선문」, 「도라지꽃」, 「돌아오지 않는 밀사」,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영상자료와 북한의 대중가요 음반, 녹음테이프 등이 통일원에 소장되어 있다(조혜정 1992, 340-341).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북한도 마찬가지로 제3국을 통해 남한의 자료를 입수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남북한은 각기 정보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더욱 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겠다.

### 4. 상호협력방안

남북한간 도서관분야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 즉, 상호대치의 핵심요소인 남북도서관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책임감이 있는 해당부서 차관급 이상의 인사와 문헌정보학 학자 및 도서관 실무담당자로 이루어진 남북도서관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양측 협의하에 주어진 기간 임기제로 임명하고, 이 위원회는 도서관 상호협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도, 관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 협력창구로는 양측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결정하며 양측 국가대표도서관에 실무자를 파견하여 협력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그리하여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공동 세미나 및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협력에 필요한 통신 및 교통의 편의를 제공한다. 교류된 정보에 대하여 양측 모두 검열을 하

지 않는다. 교류 후에 검열을 한다면 결국 도서관 협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정치적 선전물로서 전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방법에 의해 남북 도서관협력이 이루어지면 국가대표도서관은 각측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이 이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교환된 정보 이용의 단계별 이용론은 정보공개의 차별성이 국민 계층에 위화감과 조작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소망스럽지 못하다.

#### 4.1 상호협력의 정책적 기저

한국은 북한의 이념지향적 대외선전활동에 대하여 경쟁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정책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공유점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박영호, 오재현 1992). 이러한 정책적 기저위에 다음과 같은 국내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4.1.1 한반도 내에서의 상호협력

남북간 교류협력은 일정한 단계성과 점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공동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분야별 각종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교류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도홍열 1992).

북한사회 변화의 촉진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동질성 증대를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사회 변화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한의 사회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층은 혁명후기 세대 및 인테리계층이 될 것이며, 주요 촉진요인은 외부정보의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 청소년, 학생, 인테리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인적 교류의 증가로 인한 정보유입이 북한사회내에서 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폭발시킴으로서 남북한간 전반적인 정보 문화 교류가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윤덕희, 김도태 1992, 126).

##### 4.1.2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 상호협력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한반도에서의 협력은 물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전반적인 남북한간 교류 협력을 보조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닌다. 기본합의서 제21조의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라는 규정은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대해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서로 지원 협조하고, 해당사업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남북한 상호간의 협력은 ① 남북 상호간의 정보교환, ② 상호지원 및 역무(services)의 제공, ③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은 동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선린관계 유지가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남북한간의 정치적·전략적 협력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단절로 인한 비용이 협력지속으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4.2 상호협력의 내용적 측면

##### 4.2.1 정보자료교류

통일이 되기까지 남북 도서관 정보교류의 범위는 군사, 외교, 경제 및 국가기밀에 속하는 최신 과학 기술 정보를 제외한 학술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학술정보란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 기록, 간행, 배포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교류는 양측이 모두 생산하고 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자료가 있다.

① 1차자료 : 도서와 소책자 등의 연구저서, 학위논문, 학술회의록, 교과서, 기관의 간행물과 정간물,

신문, 그리고 규격, 특허, 제품목록, 정보통신 등과 같은 특수문헌 등.

② 2차자료 : 백과사전, 언어사전, 주제전문사전, 편람, 용어집, 지도첩, 인명록 등의 참고도서와 도서목록, 색인, 초록, 해제, 인용, 내용목차지와 같은 서지류.

③ 시청각자료 : 사진, 영화필름, 필름, 필름스트립,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카드, 마이크로피쉬, VTR 테이프, 녹음테이프, 음반, CD-ROM 등.

④ 데이터베이스 : 각종 데이터베이스.

⑤ 고전자료 : 민족사 정립을 위해 남북한 모두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정치적인 자료.

위의 정보자료중 1차자료의 정보교류는 아직 시기가조이며, 목록이나 색인, 초록과 같은 2차자료를 우선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고대사연구 및 저술에 있어서 양적으로 남한보다 훨씬 많고 풍부하지만 대부분의 남한 학자들은 정치적 상황 또는 그간 주장해 왔던 그들의 견해가 무너질까 두려워 북한학자의 연구성과의 수용을 꺼리고 있다. 예를들면,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단 한편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사회과학원연구소의 「조선전사」는 3권이다. 북한에서는 고전에 대한 연구서가 60년대 70년대에 단행본과 논문집으로 출판되었으며 민족사 체계화작업에 따라 「조선전사」(35권), 「항일무장투쟁사」(10권), 「조선침략사」(3권), 「조국해방전쟁사」(8권), 「고고학 논문집」이 간행된 바 있다(도진순 1992).

#### 4.2.2 도서관업무의 상호협력

학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술정보의 표준화라는 것은 정보내용을 표준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보교환이나 유통이 원활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보의 표현형식과 유통절차에 관하여 표준화하려는 것이다. 1980년도에 들어서 여러 정보기관들이 상호간에 강하게 연계되어 통합수준의 표준

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기구의 규격중 도큐멘테이션 관련부문에서 출판물의 형식, 용어, 시소러스 작성지침 등 언어관계, ISBN·ISSN 등 번호부착시스템, 간행물의 표제나 도서에 사용되는 약어나 심볼, 번역문자, 서지기술과 목록규칙에 관한 것, 초록과 색인, 정보처리와 정보교환에 관한 것, 정보경계, 문헌복제 등에 관한 표준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조명희 1991, 6).

도서관 상호협력사업의 종류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호대차이고 그를 가능케 하는 서지도구는 종합목록(Union Catalog)이다. 종합목록은 두 개이상의 도서관 장서목록으로 어떤 특정한 자료가 소장된 위치를 알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남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시 무엇보다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양측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도서관업무 분야에서 교류협력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도 높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서지류의 협동작성이 포함된다. 이것은 정보자료 교류 및 도서관 상호대차의 전제가 되며, 주요 도구이므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4.2.3 학술교류

남북한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990년 6월 26일 고려대에서 제1회 세계 학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소련, 중국 등 공산권을 포함한 전세계 한민족 과학기술인 4천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재소 및 재중 등 한인동포과학자들과의 교류 등은 차츰 다양한 학술교류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어 점차로 북한의 학자들도 참석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 공동학술행사로는 1989년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추진한 바있는 북한의 고구려 지역 학술답사와 1991년 연변에서 열린 바 있는 고려학회 주최의 KOREA학 국제학술대회는 미흡하지만 남북학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토론회가 열렸었다.

그리고 1990년 8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에서 한국학의 국제적인 학회라 할 수 있는 국제고려학회가 결정되었다. 이와같이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영역의 최고 권위자인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들이 모여 과학·기술정보 및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신뢰를 형성, 학술교류의 질적향상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교류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면 이에 수반되는 학술정보의 교류가 마땅히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수행되고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한상완 1990, 132-133).

(1) 방대한 학술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상호 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기술축적의 노하우를 거쳐,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학술교류를 시도해야 한다.

(2) 낙후된 북한의 소비재산업 및 경공업분야와 한국의 선진제조, 생산기술을 결합하는 학술교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로 이는 철저한 정보기술관리와 그 연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취약부문에 대한 기술이전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적되는 양국의 기술수준을 고양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실용화하는 상호호혜적 교류가 요청된다.

(3) 가장 효율적이고 내실화있는 교류를 위해서, 또한 이상에서 제시한 학술교류의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전문연구원이 양성되고 이에 따른 인적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인적 자원의 고급화와 전문화를 이룩하는데서야 학술활동의 성숙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적교류가 선행되어야 상호국가간 학술과 인간적 신뢰속에서 실제적이고도 알찬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자교류협정의 체결, 정부간 교환프로젝트와 각 대학 및 연구소의 교환프로젝트의 조정이 필요하며, 북한의 실정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초청과 교류는 질적 활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으로 본다.

(4) 과학기술정보를 활성화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유네스코와 일련의 국가기관과 국제기관의 후원아래 설립된 UNISIST의 활용과 같은 것이다. 활발한 통신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양한 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유통이 중요한 선결문제이며 이는 다양한 학술교류가 신속하고 최신성있는 정보의 교환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5) 학술교류가 체계적이며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전문문헌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과 각종 정보자료의 다양화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 전문적인 정보은행(Information Bank)을 구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결국 학술교류의 성공여부는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 비교, 평가없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자료의 확보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 4.2.4 출판물의 교류와 저작물의 상호보호

1989년 국내 일일서각이 일본의 조총련계 九越書房과 계약을 체결, 북한의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 복제 출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출판이란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여 어느 한 출판사가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북한은 출판에 대한 관할권이 노동당에 일원화되어 있다. 이른바 김정일이 있고 그 아래 노동당 선전국, 또 그 밑에 출판총국이 있는데 1990년까지는 출판지도국이었다가 1993년 출판총국으로 개칭되면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 출판총국은 산하에 각종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를 비롯하여 인쇄공장과 출판물수출입상사, 출판물대외교류협회 등을 거느리는 실로 출판에 관한 한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예컨대 「리조실록」의 경우도 발행기관이 형식상 아무리 사회과학원일지라도 저작권문제를 비롯한 제



반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출판총국, 나아가 노동당 선전국에 있다고 여강출판사의 이순동은 밝히고 있다(기철능 1991, 459).

한편 이순동이 북한 출판계통을 지도하는 노동당의 최고위급인사와의 면담에서 오고간 출판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면, “출판교류는 남한의 당국을 유리하게 해 줄 뿐이며, 군사정치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남북간 어떠한 출판계약도 어렵다. 남한의 비정치적 교류우선책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표명하고 있다(기철능 1991, 450).

그러나 부속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중 제9조에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앞으로 남북사회 문화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서 그 범위, 보호기관, 이용절차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이 저작권을 상호보호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기철능 1991, 463; 한승현 1993, 89-93).

(1)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 각기 자기측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 즉, 남북 당국자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호혜적이며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럴 경우 협약의 효력은 한 반도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남북당국자들 중 어느 한편이 기존의 협상전략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당사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남과 북이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권보호법제를 갖추고 동일한 다국간 저작권 조약의 회원국이 되는 방안, 즉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과학기술서적의 경우 외국서적을 무단번역출판하고 있는 책이 많

은 관계로 세계저작권조약 가맹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이 저작권보호법령을 갖추기 전에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다국간 조약에 가입할 가망은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3) 남북간에 저작권보호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새로운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절차적으로 남북은 자기 지역에서 간행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한 상대지역의 출판, 문화, 학술 등에 관한 정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되어 있는 교육, 문학·예술 등 각 분야의 출판 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대표단 파견·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 연구·조사 편찬사업·행사의 공동실시, 예술작품·문화유물·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와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이행을 위한 규정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남북저작권을 상호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실정법의 전향적 개정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남북간의 문화교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보완되어 지금까지의 금지와 제한 일변도의 제도를 과감히 개방하여야 한다.

### 4.3 단계별 추진방향 및 세부방안

#### 4.3.1

제1단계 :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단계

##### 1) 자료 및 정보교류

자료 및 연구성과의 교류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이루어져왔다. 부속합의서 채택이후 이는 보다 공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연구성과 및 자료의 전면적 개방과 교류에는 정부차원의 법적적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제 남북간의 연구성과 및 자료는 보다 전면적이면서도

한단계 진전된 특성을 지닐 필요가 있는데, 우선 어느 한쪽만이 소장 활용하고 있는 자료와 연구성과가 전면적으로 조사되어, 민족공동의 역사적 재산으로 향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도서관 장서목록 교환
- 자료의 상호대차
- 자료의 상호복사제공
- 기상, 지진, 생태계, 수자원 어족자원 등 기초 과학 및 순수학문 관련자료 교환
- 미술품, 전통예술 및 민속예술 자료, 순수기록 영화 교환

남북간에 흩어져 있는 국학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자료를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자료는 남한에 비하여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사료에 대한 번역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56년 제3차 당대회의 '교시'에 입각하여 과학원에 고전연구실이 설치된 이후 고문헌들의 복각, 번역활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1958년에 「삼국사기」를 원문대역 2책으로 출판하였고, 이듬해에는 「삼국유사」도 원문대역본으로 편찬발간하였다. 이후 번역된 책은 주로 실학관계자료와 고려사와 조선시대사의 필수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이다. 이렇듯 북한은 고조선, 고구려에 대한 북한지역의 발굴자료와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 우선 가장 손쉽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국학의 세계적 보고인 奎章閣圖書가 있다. 奎章閣圖書는 이미 체계적인 목록집, 해제집 등이 나와 있어 손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2) 공동활동 및 공동조사연구

남북한 학술교류를 마련하는 것 중 하나가 문헌정보학 학자들간의 공동연구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공동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술정보의 표준화
  - 표준통일분류표 제정
  - 표준통일목록표 제정
  - 국제기구나 해외동포들이 제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나 국제학술대회에 공동참여 (예, IFLA, FID)
- #### 3) 출판물 교류
-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 신문·방송의 국내소개 확대
  - 북한의 고전국역, 동의학, 농기구학, 고고학분야의 전문분야 도서구입 실시
  - 탈이념적인 과학 기술 및 학술분야의 전문서적과 정기간행물, 인기소설, 오락서적의 전사회 상호개최
  - 순수학문 및 기초과학분야, 자연경관 및 생태계 관련 연구자료, 체육·문화행사 자료집 등 공동제작 출판
  - 과학·기술 용어사전 및 교과서 공동편찬

#### 4.3.2

제2단계 : 협력체제확립을 통한 동질성 증대단계  
이 단계에서는 정보자료의 교류확대와 개방을 추진하고, 민간학술단체 및 지역간 교류,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 정보자료 교류확대 및 개방

- 남북한 자료종합목록 작성
- 시소러스 공동작성
- 자료의 공동수집(1955년 이전자료)
- 자료의 공동보존 및 양측 공동납본제도 규정
- 상대편 언론, 출판물에 상호 교환개재
- 역사도서 공동집필
- 활자통일 및 국어사전 공동집필
- 성서, 경전 및 교리 공동편찬 등.

##### 2) 민간학술단체 및 지역간 교류확대

- 학술단체, 학교, 연구기관 간의 자매결연
- 학자, 학생의 장기 교환사업 추진(교환교수제,

교환학생제의 도입)

- 교육세미나, 학술회의 공동개최
- 판문점내 남북학술회의장 설치 추진
- 남북간 도서관 시찰단 구성 등.

3) 국제협력

- 국제백과사전(예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수정  
판찬시 한반도 관련자료의 남북 공동집필 등.

4.3.3

제3단계 : 도서관과 학술교류의 제도적 정착단계

이 시기의 남북한 동질화 작업의 추진 목표는 분단체제에 익숙해 있는 남북한 양측 주민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서 통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1) 정보자료와 학술교류 정착

- 자료의 협동열람
- 자료의 공동 정보조사제공
- 협동공보활동
- 도서관 정보센터의 전산화
- 정보은행의 공동운영 및 정보네트워크 설치 운영

2) 남북공동기구 설립 운영

- 학술단체, 협회, 학교 연구기관 단일조직 구성

3) 북한지역의 사회·문화 간접자본 확충지원 및 기회 제공

- 각종 협회·단체 등 이익단체와 동호인 클럽들의 북한지부 설치, 회원모집

이러한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국민들에 대한 재교육 또는 교화를 위한 가장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최선의 방법은 여러가지의 다양한 교양도서를 보급해서, 이러한 교양도서를 자유로 선택해서, 독서를 통해 스스로 교화하고, 스스로 재교육하는 방법이다. 북한 도서관의 장서만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남한의 도서관 장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8·15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모든 교양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와 정리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며, 양서로 평가된 도서에 한해서 양질의 종이에 선명하게 인쇄해서 완벽한 장서용으로 제본해서 각종 도서관에 보급되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북한은 핵개발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대외관계에 있어 과거와는 달리 현실을 중시하는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에 대한 입장도 일반적인 국제규범과 규칙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북한의 도서관계의 사정과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대표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등과 남한에서의 북한자료 입수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협력방안을 정보자료의 교류, 도서관 업무에서 상호협력, 학술정보의 교류, 출판물의 교류와 저작물의 상호보호측면에서 고찰하고, 단계별로 추진방향 및 세부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도서관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주변환경과 문화정책이 과감히 혁신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북한자료에 대한 개방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문화의 뿌리이며 정보제공의 핵심기관인 도서관이 남북간에 협력하고 그 기능을 양측 주민에게 발휘할 수 있게 될 때 통일이란 민족의 숙원을 풀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인 용 문 헌

- 高哲義. 198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81(8) : 455-45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국가안전기획부. 1984. 북한의 도시개발실태. 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 국민일보, 1992년 6월 15일자.
- 기철능. 1991. “남북출판물 교류비밀협상.” 읍서버 23 : 454-465.
- 도진순. 1992. “남북한 역사학계의 특성비교와 남북교류에 관한 연구.” : 331-368. 통일원 편. 통일환경 남북한 관계. 서울 : 통일원.
- 도홍열. 1992. “남북한간 비정치적 교류·협력 증진방안 : 인적, 정보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108 : 25-78.
- 민족통일연구원. 1983. 북한중앙기관조직현황.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박영호, 오재현. 1992.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력방안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 1945-1982. 서울 : 북한연구소.
- 양기백. 1991. 미의회북한관계자료 실태분석. 서울 : 통일원.
- 양일운. 1982. “북한의 도서관.” 북한 126 : 108-119.
- 윤덕희, 김도태. 1992. 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 사회 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중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명희. 1991. “한국 도서관네트워크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회도서관보 28(4) : 3-14.
- 조혜정. 1992. “북방자료의 최대집산지 통일원 정보분석실.” 읍서버 31 : 336-345.
- 통일원. 1993.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 타결과정. 서울 : 통일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남북학술교류 여건진단 및 대비책 모색.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상완. 1990. “한국과 중국 소련과의 민간학술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연구.” : 105-14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소·중·동구의 문화관계. 광주 : 동연구소.
- 한승현. 1993. “남북부속합의서에 따른 저작물의 상호보호방안.” 인권과 정의 197 : 87-93.
- 황석영. 1993. 사람이 살고 있었다. 서울 : 시와 사회사.
- Kim, Gyong Sop. 1991.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Activit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ed. Ben G. GoedeGebuure, et al. *Information, A Resource for Development*, Amsterdam : Elsevier.
- Mupawaenda, O.T. 1987. “A Zimbabwean Librarian Visits North Korea.” *Information Development* 3 (1) : 44-45.
- World Guide to Libraries*, 10th ed. 1991. München : Saur.